

금이 처음으로 1573년에 나카제의 야기강에서 발견되었으며 머지않아 광산이 발견되었습니다. 나카제는 정권에 매우 중요한 수입원이 되어 3곳의 문에서 마을의 출입을 관리하는 등 성읍(성곽을 중심으로 발달한 도시)과 마찬가지로 삼엄한 경비가 행해졌습니다. 아즈치모모야마 시대(1573-1603년)부터 에도시대(1603-1867년) 전기에는 긴키 지방 최대의 금광으로 번창했습니다. 안티모니가 후에 발견되었고 나카제 광산은 이윽고 일본 최대의 안티모니 광석 공급지가 되었습니다.

1969년경에는 안티모니 등의 자원이 감소해 광산은 폐쇄되었고, 중국에서 원료를 주괴 형태로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나카제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했으며, 에도시대(1603-1867년)에 세워진 8개의 사원은 5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수입하는 안티모니의 정제는 계속되고 있으며, 일본 국내의 안티모니 제품 중 70%가 지금도 나카제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나카제 금광 검문소에는 나카제 광산에서 채굴된 아름다운 광산물 샘플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가장 훌륭한 광석 중 하나로 626g의 석영과 융합된 자연금이 있는데, 이것은 미국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